

광주 풍암저수지 '가을 녹조 심각'

물 순환 안되는데다 오염수 유입 많아

녹조방지 수질개선장치 효과 없어

“해가 갈수록 녹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17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풍암저수지)이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다. 온통 녹조로 가득 차 저수지에서 푸른빛의 물색은 찾아볼 수 없다.

호수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몇 년 동안 지속됐으면 개선될 만한데 해가 지날수록 녹조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혀를 찼다.

광주도심의 호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풍암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다. 이날 오전만 해도 수십 명의 시민들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풍암동에 거주하는 박모씨(55·여)는 “그래도 올해는 악취는 달한 것 같은데 초록빛은 더 심하다”라며 “전에는 붓어, 오리도 실었는데 녹조가 심해서인지 다 어디 가고 없다. 동물도 못 사는데 사람한테는 해가 없을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모씨(50·여)는 “너무 오래전부터 녹조가 있어서 언제부터 심해졌는지 기억도 안난다. 여름에 한창 심하다가 누그러들곤 하는데 올해는 10월까지도 녹조가 심한 것 같아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가 싶다”면서 고개를 가우뚱했다.

‘날이 갈수록 녹조가 심해진다’는 주민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녹조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녹조의 주된 원인을 찾아 하나씩 제거해가고 있다. 녹조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유독 풍암저수지 녹조가 심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첨단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5)는 “물이 고여있어 녹조가 생기는 것인데 다른 저수지들도 다 녹조가 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독 풍암저수지만 심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수십 년 동안 녹조가 있었는데 없애지 못하는거면 뭔가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른 저수지보다 녹조가 심하다

는 지역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서구청은 풍암저수지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은 것이 녹조가 심한 이유라고 답했다.

또 호수 주변의 도시화가 진행돼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차단된 반면 비가 왔을 때 오염수가 많이 유입돼 녹조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풍암저수지는 7만4000평으로 인근의 운전저수지(2만평)와 전평호수(1만3000평)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규모와 수심이 적당한 운전저수

지와 전평호수는 연꽃,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이 잘 번식할 수 있지만 수심이 깊고 넓은 풍암호수는 녹조를 완화할 만큼의 수생식물이 번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 물이 순환되는 운전저수지와 달리 풍암호수는 물이 순환되는 통로가 없고, 지대가 주변보다 낮아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축적된 것이 녹조 현상을 촉진한다고 답했다.

실제 풍암호수에는 곳곳에 녹조방지 수질개선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장치 주변 불과 1~2m만 물이 청량일뿐 실질적인 수질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풍암저수지 녹조현상이 다른 곳에 비해 유독 심해 녹조의 주된 원인을 찾고 개선

해 나가는 중”이라며 “서창천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2022년에는 녹조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대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녹조제거제를 뿌리고 직접 녹조를 제거한다. 또 부레옥잠, 물배추 등 수생식물을 심어 녹조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대책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을 벌여 내년 하반기에 유입관로를 설치해 영산강 물을 하루 7500톤씩 저수지로 유입시키면 두 달이면 45만톤의 저수지 물이 완전히 교체된다”며 “물이 순환되면서 녹조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해병대 특경대 테러범 진압 작전 1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역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에서 해병대 1사단 헌병 특경대가 테러범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월 등산사고 5천여 건

행정안전부는 단풍 절정기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산을 찾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2988만명이며, 특히 10월에는 평소(월 평균 249만명)보다 2배 정도 많은 449만명이 다녀갔다. 통계에 따르면 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만

6718건이며, 이 중 4845건(13%)이 10월에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체사고의 58.6%가 서울(7114건, 19.4%), 경기(6957건, 18.9%), 경남(3798건, 10.3%), 강원(3683건, 10.0%)에서 벌어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실족·추락이 1만220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6623건(18%), 안전수칙 불이행 5709건(16%), 개인질환 4135건(11%)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

기의 산행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등산로와 풀숲에 밟힌 이슬이 마르지 않으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행 시 미끄러짐을 예방하려면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 방지 등산화 신고, 걸을 때는 돌이나 바위를 밟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는 것이 좋다. 또 요즘처럼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는 해가 일찍 지므로 조급한 마음에 하산을 서두르다 실족하거나 조난되기 쉬우니 산행은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음주 무면허·뺑소니 베트남 불법체류자 검거

민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로 베트남 국적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보험과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송정시장에서 막걸리 한 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9%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누설” 직원 무차별 폭행한 업주

마사지샵 업주가 가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한 마사지샵 직원 A씨(30)는 지난달 4일 오후 10시10분쯤 가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업 비밀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업주 B씨(45)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업주 B씨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무릎 꿇게 한 후 철제 의자와 주먹, 발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폭행 장면을 문 밖에서 훑어봤다는 이유로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와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미용 제품을 판매하며 마사지 관리를 제공하는 테라피샵 업주로 수년간 마사지샵을 운영했으며 A씨는 1년6개월 간 이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마사지샵 개업을 앞 둔 지인에게 영업 노하우를 알려준 것을 두고 B씨가 “다른 가게에 영업비밀을 누설해 자신을 망하게 하려 한다”며 격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가게 CCTV 영상을 통해 폭행 당시 장면을 확보했고 당시 폭행 장소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 여친 집에서 명품가방 훔친 20대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박자금에 마련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쯤 광주 남구의 전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꾸찌,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할 당시 알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했고 B씨가 출근한 오전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전과가 있는 A씨는 훔친 가방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400만원을 마련, 도박 자금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 세정제 제조공장서 황산 누출 3명 화상

17일 낮 12시 18분께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세정제 제조공장서 황산 500㎖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39), B씨(37), C씨(30) 등 3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소방본부는 차량 8대를 동원해 오후 1시께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